

## 정보의 제 4 시대

Wilbur Schramm

동서문화센터 명예교수

모든 사람은 생일을 즐깁니다. 지금은 오래된 일이지만 저의 어린 딸이 첫번째 생일을 맞아 행동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첫 생일 케이크를 맛보고 멋진 옷을 입은 어린 친구들이 가져온 잘 포장된 생일 선물들에 둘러싸인 채, 제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서 “아빠 다음 주에 다시 내 생일을 맞을 수 있을까요?”라고 간청하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생일이 지나치게 느리게 다가오고, 제 나이쯤 되면 생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20세라면 참 적당한 정도로 찾아온다 할 수 있겠군요. 그러므로 이번 20주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심포지움에 참석한 동료 여러분들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김 규환 박사에게 이곳까지 초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활동적인 신문 연구소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김 박사께서는 우리들을 즐겁고도 의미깊은 학문적 기회에 초대하셨을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우리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후 4번이나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이 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중 첫번째는 약 5만5천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인간 언어의 완성과 도구의 정교화와 함께 이 변화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이 시기에 관한 기록이라고는 동굴 벽화나 기록된 조각이나 깎은 뼈, 날카롭게 다듬은 돌등을 제외하고는 많이 지니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로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정교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조해 냈던 역사의 여명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밝혀 준 선사시기의 르네상스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두번째 것은 약 5천년 전의 문자의 발명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수마리아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인간에게 기록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과거 지사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두뇌의 대부분을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도구는 책과 도서관, 도시와 학교, 과학의 태동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모든 위대한 문명을 성장시켰습니다.

세번째 사건은 기나긴 시간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1700년 전에 양질의 종이와 잉크가 발명되었고 AD700년경에는 최초의 책인 금강경을 목판 인쇄 할 수 있었습니다. 6~7세기 후에는 한국인들이 이것으로부터 장죽의 발전을 이룩하여 나무나 금속으로 주조된 날개의 활자로 인쇄하는 법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구텐베르그는 유럽의 포도짜는 통(wine press)을 이 이전에 개발된 기술에 적용시켜 서구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느끼기로는 구텐베르그의 발명은 일종의 역사적 폭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에 의하여 폭넓은 정치 참여, 교육 기회의 진지민적 확대, 신문과 잡지의 출현, 생업과 행정의 혁명적 변혁, 실제적 과학에 의한 산업 혁명이 19세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의 세 시기와 같이 인류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될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제 4 장의 출현을 보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도 한낱 한시에 명백하게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가 이 시기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할 때는 아마도 1940년대의 3년에 걸쳐 발생했던 커뮤니케이션사의 새로운 장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 1945년 영국의 라디오 기술자인 Arthur Clarke는 영국의 잡지인 'Wireless World'에 "커뮤니케이션 위성의 개념"이라는 4페이지의 기사를 발표했다.
- 1946년 프린스턴의 수학자인 John von Newmann은 전자 컴퓨터의 이론에 관한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후의 모든 현대식 고속 컴퓨터는 그가 도해한 것을 따르게 되었다.
- 1947년 뉴 저지의 벨 전화 실험실에서 3명의 기술자이며 물리학자인 Bardeen, Brattain, Shockley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하였는데 이 최초의 작은 고체 발명품은 집적 회로 장치, 사고하는 기계, 로보트, 그리고 기타 모든 마이크로 전자 공학의 개발품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가를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Clarke는 이 새로운 전자 공학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만약 벤자민 프랭클린,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르키메데스 등에게 현대의 디젤 엔진, 자동차, 증기 터빈, 헬리콥터 등을 보여 준다면 이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레오나르드는 그의 이론으로도 얼마간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의형과 그 기량에 모두 놀라긴 할 것입니다만 이 경이로움을 일단 넘어서면 이들은 부수적인 통제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을 그다지 깊이 탐구해 보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TV세트, 전자 컴퓨터, 핵 반응기, 레이더 장치 등을 집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기계들의 복잡성은 차치하고라도 개개의 부속품들은 금세기 이전에 태어난 어떤 사람에게도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의 지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전자 광선, 트랜지스터, 원자 핵 분열, 전기 도파관, 음극선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 틀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예측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Clarke가 194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공 위성은 앞으로 50년 동안, 즉 1995년까지는 이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읍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최초의 위성인 Sputnik는 1957년에 궤도에 올랐읍니다.

어떤 역사가는 만약 1450년에 구텐베르그의 새 발명품에 대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왕정 위원회가 소집되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를 상상해 보기로 하였읍니다. 그들은 금세 “어떤 지원금도 줄 수 없다”라고 결정하거나 또는 “매우 기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말했을 것 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최근의 발전 속도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1957년 10월 우리는 “빹빹” 소리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규모 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25년 후에는 세계의 모든 도서관이 가진 것 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운반하는 모든 종류의 인공 위성을 2만5천대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계산하면 1억2천5백만\$이 드는 곱셈을 소형 계산기로 하면 2천5백만\$의 비용이 들 것이고 만약 1970년에 이용가능한 가장 빠른 컴퓨터로 일을 처리한다면 약 5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1970년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1970년의 컴퓨터들은 전자 거북이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역사에서 4번째의 위대한 장으로서 역사가들이 부르기 시작한 정보의 4번째 시대를 접하게 될 때 기술 발전의 속력, 작동의 속력, 정보 전달의 속력은 새로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무엇이라 명명하든지 간에 그 시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1. 보다 많은 정보가 흐를 것이다.
2. 보다 빨리 흐를 것이다.
3. 보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올 것이다.
4. 천연 자원, 산업과 군수 물자에 버금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정보에 빨리 접근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힘이 제공될 것이다.

특히 정보가 빨리 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델슨이 트라팔가 전장에서 전투를 준비하면서 그의 선원들이 전 함대에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제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깃발을 들어 올리는 데 1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저는 일전에 재미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런던에서 파리에 있는 Bibliotheque National의 모든 내용을 런던의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옮겨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해 보았읍니다. 물론 우리의 계산에는 몇 개의 가정이 있었죠. Bibliotheque National

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를 계산할 것.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책과 원고의 내용이 컴퓨터에 옮겨져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터 회선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러한 가정하에서 행해졌는데 그 일은 7~17분 정도 걸렸거나 트라팔가에서 함대에게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흐를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를 들면 14C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소르본으로서 1338권의 책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6개의 도서관이 각각 8백만권을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고 소도시나 마을에 있는 학교 또는 지역 도서관들도 1338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지 못하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50년동안 미국에서 일년당 팔리는 책의 수는 600%로 증가했으며 유럽과 미국의 전화통화수는 1978년과 1980년 사이에서만 해도 1년당 약50%가 증가했고 미국에서의 1년당 전화통화 전체수는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100배로 증가했습니다. 제록스 회사의 chief enginner인 George R. White는 좀 더 환상적인 계산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평균 인간 뇌의 정보 축적량은 인쇄 이후에 10배가량 증가했고 지난 세기의 전자 발전 후에는 100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그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인간에 이용 가능한 전체 정보량이 인쇄이후로 100배로 증가하였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이후에는 만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White의 계산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자리 수가 틀려서 인쇄 이전에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만배가 아니라 천배로 늘었다고 합시다. 1000배로 늘어난 정보하에서 평범한 시민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출하고 아직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수 많은 정보량으로 인해 좌절하겠습니까? 활동하는 모든 시간을 정보에 계속 투입하고도 계속 좌절감을 맛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제 4 시대를 지주하고 TV의 미녀 삼총사로 눈길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새 시대는 보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터 정보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수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자면 전화로 지구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도착할 수 있는 세상, 광범위한 TV시청자의 일부는 달로부터의 프로그램을 보려고 모이는 세상을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정보의 속도로 돌아가서 달 방송이 약 1 1/2 초안에 우리에게 도착한 것을 상기해 봅시다. 그리고 언급한 정보의 힘을 상기하면서 일본이 오늘날 풍부한 천연 자원이나 군수 자원의 공급이 없이 단지 기술적 정보의 수 많은 공급만으로 이룩해 놓은 것을 기억해 봅시다. 이 정보의 4시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가 제공하는 기회들에 창조적이어야 할 것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앞 길에 던져진 함정을 피할 것을. 그러면 이들 함정이란 무엇입니까? 그중 한 가지는 과부하의 위험입니다. 즉 너무 많은 정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토플러는 그렇다고 생각하여 'Future Shock'이라는 책에 이에 대한 여러 점들을 기술했습니다. 사람이 그에 제공되는 수 많은 정보를 지닐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고자 하니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 100,000種의 현재 발간되고 있는 책자 가운데서 50種의 각종 저널에 접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4가지 신문 지방 신문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그리고 최소한 하나의 외국 신문을. 아울러 학자들 사이에 배포되는 수 많은 초안과 preprint를 읽어야 하며 매달 학자와 앞으로 학자가 될 사람으로부터 약 50통의 편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Cable TV는 36채널이 있는데 약 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채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동시에 두 채널을 Cover 할 수 있을 뿐이며 15내지 16채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매일 평균 직접 방송되는 것이나 녹화된 것이나 간에 TV에 단지 2,3 시간 만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VTR이건 아니건 간에 제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TV이니까요. 그러므로 TV하나의 채널당 매일 16시간 내지는 17시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표본 추출하지 않은 채로 방치해두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80채널을 갖게 될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VTR을 갖고 있다는 것은 80개 중 78개는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3시간을 본다고 합시다. (그 시간은 저로서는 최대치이고 또한 평균 미국 성인 시청 시간입니다만) 평일에 약 1,900 시간의 TV방송이 제집으로 올것이나 그 중에서 3시간 혹은 그 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1,900시간중 3시간 미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TV 시청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좌절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한 사람 이상의 것입니다. 정부는 과중한 부담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들에 의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와 개인 모두가 폭주하는 정보 흐름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빠른 현실 시험을 고안해야만 할 것입니다. 공식적 정보의 많은 부분은 비사용적이고 비공식적인 근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홈페이지 체계는 인질 위기 시기에 공개 TV로 제 3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정보의 어느 정도가 믿을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외국 정부가 공식적 견해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취사 선택을 고려할 수 있었을 때의 비밀성(secretcy)의 전통적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정보는 빨리 그리고 대량으로 옵니다. 그리하여 정보는 빨리 가능하면 현명하게 답해야만 합니다. 일반 시민은 극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러설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용가능한 정보의 얼마만한 부분을 다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민에 믿을 수 있게 넘겨 줄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이러한 새 시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위협이 도전과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정보시대가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도전은 무엇을 사용하는 것인지 무엇을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향후 20년간 이 연구소(서울대 신문연구소) 앞에, 또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사용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앞에 나타날 도전은 우리의 시야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나 교수들이 정형적으로 행해온 미세한 매력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단계로 격상시켜 줄 것이며, 또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미래복지와 연결시켜 주는 진실로 중요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미래를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도 관계된 문제들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는 고도의 테크놀로지 문명이 진형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하계 속에 있는 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는 제외하고는 아마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증가된 정보를 가지고 McLuhan이 말한 지구촌은 아니더라도 이웃세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야 그의 이웃이나 가족을 파멸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20년간 우리는 무엇을 연구해야 하겠습니까? 길게 작성된 list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몇개의 예를 들겠습니다.

#### 발전의 문제

커다란 변혁의 시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으며, 또는 변화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를 밝혀줄 최적의 시기입니다. 발전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0년동안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사용이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알아왔습니다. 우리는 소위 서구화 모델을 지향해 왔고, 서구화 모델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많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2~3개의 다른 모델들을 지향해 보았고 그들이 적당치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왜 실현되지 않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떤 방식이 앞으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선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발전에 있어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 불균형의 문제

풍부한 정보와 빈약한 정보간의 불균형은 좁혀지기보다는 점점 심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富國과 貧國간의 차이, 교육받은 계급과 못받은 계급간의 차이, 정보소유와 정보비소유의 차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세대차까지 직면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의 자전거를 원하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자동차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작은

컴퓨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부모나 조부모들에게는 아직도 신기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종류가 그들에게는 곧 친숙해 집니다. 이들 겹을 없애기 위해 예를 들어 원격리방송교육 같은 장치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과부하의 문제

테크놀러지 자체는 정보를 획득하기 쉽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라디오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은행으로부터 사용자가 알고자 원하는 것을 불러낼 수 있게 해주는 비디오텍스트같은 기구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관점, 즉 발췌하거나 요약할 수 있게 하려는 또, 신문공급을 도우려는, 한편으로는 더 많은 라디오방송용 기사를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보다는 경향이나 발전에 대한 더 많은 요약 기사를 지향하는 움직임에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 이미지의 문제

제 3국의 어떠한 종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제 3국을 보는 데 대하여 제 3국 스스로는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내용 분석이 시대에 쫓겨 떨어진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항수 계산이나 길이 계산을 넘어서는 비판적 내용 분석은 결코 구시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갈등해소의 문제

하나의 하위부분(sub-field)인 갈등해소가 현재 대두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예상한대로 이 문제의 일부를 떠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국가·계급·조직 사이의 갈등을 약화시키지 않고 해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요청적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유연성 있고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문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까?

####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문제

필자는 꽤 실용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이론적인 문제로 결말을 짓고자 합니다. 수년전 필자는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가 그 자신의 활동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쿼크(quarks)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쿼크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 입자의 이름입니다. 아무도 쿼크를 본일은 없습니다. 또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수년 내에 이보다 더 기본적인 어떤 것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그 물리학자는 그가 별로 실용적인 연구는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사과조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쿼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생물학·화학·물리학·공학·수학과 정보학 등의 모든 위대하고 유용한 발견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서 실로 유용한 모든 계획의 일부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가능한 많이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1950년에 필자는 야망에 찬 제목 “*How Communication Works*”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이후 나는 그것을 개선시키고 최신화하여 조금씩 변화시켜 제삼재사 다시 써 왔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언어로 재출판되었고 그 각각의 언어로 개선되었고 최신화되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신문연구소가 과거에 자주 개정된 논문을 다시 쓸 필요가 없도록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같은 것들은, 우리가 내년의 계획을 짤 때에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기회와 도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친구 에드워드 머로우(Edward R. Murrow)가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자에 관하여 썼을 때, 콜럼비아 대학에서 뉘퐁상(duPont Awards)을 받을 때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고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즉, “이 도구는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밝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자 결정한 만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상자 속의 빛과 목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방송인의 직선적인 실용적 말 가운데에서 볼 때, 이것은 나의 도전이며, 당신의 도전일 것입니다.